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8년 11월

선교편지 제 115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아팔라야 고등학교 학원 사역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정에서 단지 몇몇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작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 주셔서 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팔라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매주 금요일 오전 두 시간을 정규 채플 시간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복음으로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에,



500여명의 전교생을 대상으로한 집회 형식보다 교실별로 약 40~50여명의 소그룹 (?)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두 명의 현지 사역자를 전담하도록 했는데, 한명의 사역자가 더 추가되어, 이제는 저까지 포함한 네 명이 함께 수고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팔라야 고등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약 8년전 마띠 고등학교에서 디고스 사역을 시작할 때의 감격이 새롭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 당시, 디고스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무작정 전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인줄 미처 몰랐는데, 저의 부족함을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우면서 학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약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 2년여 기간을 학생들과 함께하고 25명의 학생들을 선별하여 제자훈련을 시작함으로써, 마침내 지금의 디고스 사역으로 구체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팔라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 마다, 이러한 선교의 야성(野性)이 새롭게 끓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마다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채플 시간에 참여하여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소규모지만 본인의 의지로 복음 앞으로 나오는 학생들을 훈련하고 키우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토요일 성경 공부반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자발적으로 꾸준히 참여하는 2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좀 더 깊이 전하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채플 시간이 있는 금요일도 귀하지만, 토요일 제자 훈련 시간을 위하여 더 많은 준비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자 훈련은 물론 한류의 영향으로 인기가 매우 높은 한국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아팔라야 사역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채플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특히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학생들이 아팔라야 지역에 귀한 믿음의 씨앗들로 자라서 이 지역을 온전히 복음화 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세워질 아팔라야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장학 사역에 속한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체육대회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여러가지 단체 활동이 있었지만, 체육대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회 내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교인들과 가벼운 운동 조차도 함께한 적이 없었던 것이 늘 아쉬웠었습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남학생들은 농구, 여학생들은 배구 경기를 하기로 하고, 마을 공동 운동장을 빌렸습니다. 교회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은 후에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응원을 위해서 어른들과 어린이들도 모두 마을 운동장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이미 장학사역에 속한 학생들을 남자 농구 3팀과 여자 배구 2팀으로 나누어 대진표를 준비 하였습니다. 필리핀의 국기가 농구인만큼, 비록 동네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농구에 대한 열정과 현란한 기술은 혀를 두를 정도입니다. 시작도 하기전에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마침내 농구 경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물론이고, 구경하는 관중들도 열기가 대단합니다. 경기가 종반적으로 흐르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본래 예정에 없던 장년 남자들이 즉석에서 팀을 구성하여, 대학생 팀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더불어 이

에 질세라, 장년 여자들도 여자 대학생팀에 배구 경기로 도전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대학생들간의 경기가 아니라, 대학생과 장년팀의 경기로 분위기 완전히 전환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 덩달아 신이 나서 더 열광적인 경기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대학생 친목 경기가 전교우 체육대회로 변경이 되어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년들의 투혼은 높이 살만 했지만, 예상대로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경기를 마치고, 최우수 선수상(MVP)을 만장일치로 '마리안'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마리안은 '장학사역'을 통하여 인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4학년 여학생입니다. 교회 찬양팀에서 기타와 키보드를 연주하기도 하고, 보컬을 담당하기도 하는등 모든 섬김에 앞장을 서는 성실한 학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고스 예일 교회의 예배를 마친후, 익핏 교회에 함께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안은 선천적으로 손가락이 5개가 아닌 4개만 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누구보다도 찬양팀에서 악기를 열심히 연주 할 뿐 아니라, 웃음 소리가 가장 클 정도로 명랑하고 밝습니다. 그런 마리안이 이번 체육 대회에 누구 보다도 열심으로 잘 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하루종일 온 교우의 웃음 소리가 그치지 않은 가운데, 마리안의 웃음 소리가 더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온 교우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살전 2:20)



 익핏 지역에 살고 있는 '로잘린' 부인은 참으로 특별한 교인입니다. 2년전에 익핏 초등학교 교정에서 시작한 익핏 예일 교회에 거의 한주도 빠짐이 없이 다섯 명의 자녀를 데리고 출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교인들의 집에서 진행되는 성경공부에도 빠짐이 없는, 개근상이라도 만들어서 주어야 할 만큼, 성실한 교인입니다. 슬하에 모두 일곱 자녀를 두었는데, 장성한 두 딸은 타지역에서 살고 있고, 지금은 엄마 품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만큼 어린 아이로부터 익핏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까지 다섯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다른 주민들과 다름 없이, 나무로 엮은 단칸방에서 인근 바나나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편과 다섯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잘린 부인이 특별한 이유는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일학교'에도 꼭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석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주일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자녀들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는데, 로잘린 부인의 자녀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도 옆에서 함께 암송을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으로 성경암송에 참여하니까, 그 부인의 자녀들도 얼마나 성경 암송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매주 누적해서 성경암송을 하는데, 로잘린 부인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암송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집에서도 로잘린 부인은 자녀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디고스 예일 교회에 반가운 새식구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로잘린 부인과 다섯 자녀는 물론이고 마침내 남편이 함께 출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익핏 마을에서 디고스 교회까지는 이곳의 교통 수단인 오토바이로 15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두 대의 오토바이에 적지 않은 값을 지불하고 일곱 식구가 출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디고스 예일 교회의 교사들과 함께 다시 익핏 지역으로 가서, 또 다시 익핏 예일 교회 예배에 참석

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에 그 남편답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남편도 얼마나 성실한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로잘린 부인의 가정을 얼마나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과는 쉽게 구별이 될 정도로 매우 총명하고 뛰어 납니다. 성경 한절이지만 매주 누적해서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로잘린 부인의 자녀들은 성경을 한 절이 아닌, 단락을 통째로 암송을 합니다. 교사들도 너무 놀라워서, 호기심이 발동하여 암송을 계속 시키는데, 그 총명함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빨리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과 아이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한 성도들을 교회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 122:6)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바카카 교회의 부흥과 아팔라야 사역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